

탈북여성을 통해 본 북한 여성의 교육경험 분석¹⁾

안 재 희*, 민 무 숙**

초 록

이 연구는 탈북여성 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교육이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평등의 목표가 교육의 전 과정에서 어느 정도 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석결과 북한교육은 교육의 기회, 교육의 과정 그리고 교육의 결과면에서 성역할 이데올로기에 따른 역할 구분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성역할 이데올로기는 북한사회에서는 남녀의 생물학적 특성을 고려한 여성에 대한 배려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성에게 남성과 다른 삶의 경험과 진로, 책임과 과제, 기회를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선형적으로 부과한다는 점에서 북한교육은 성별에 따른 차별의 또 다른 연장선상에 위치한다.

I. 연구의 목적

최근 들어 남북한 사회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나아가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북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교육분야에서도 역시 남북한 교육통합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북한교육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학교교육은 북한사회의 가장 기초체계를 형성하는 기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작업일 것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1) 이 논문은 민무숙, 안재희(2001), 『북한의 여성교육에 관한 연구』 내용중 일부분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이다.

하지만 북한교육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 속에서 북한여성들의 교육경험을 분석한 연구는 그리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 남북한 교육통합과 관련해 교육이념이나 목적, 내용, 정책, 학교체제의 실태, 교육과정에 대한 비교 등을 다루고 있다(김순배, 1989; 한만길, 1998). 물론 이러한 연구들이 북한교육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상황에서 북한교육 일반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여성에 대한 변수는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 북한여성을 다룬 연구 경향을 보면 여성정책이나 정치사회화, 일상 삶이나 문화, 가족문제 등 비교적 다각도에서 이루어져 왔지만 교육체제와 관련된 여성문제에 대한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이태영, 1988; 이온죽, 1990; 이상화, 1996; 장필화, 1996).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 북한교육 연구에서 여성의 문제가 누락된 지점과 일반 북한여성에 대한 연구에서 교육에 대한 미흡한 면을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점에서 출발한다.

한국 사회에서 북한여성의 교육경험을 분석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은 북한여성 교육현황에 대한 일차적 자료를 구할 수 없다는 문제와 교육의 문제는 비교적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기인했다고 보여진다. 특히 후자의 가정을 가능케 하는 것은 북한이 제도적으로 남녀평등을 위한 제반장치들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은 해방직후 《남녀평등권법령》, 《북조선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을 제정하는 등 남한보다 이른 시기에 법적으로 남녀평등의 기반을 닦았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1956년 초등의무교육을 시작으로 1958년 중등의무교육, 67년 전반적 기술의무교육, 1975년부터는 취학전 1년을 포함해 11년제 의무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더군다나 『김일성저작선집』 7권에서는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각급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에 대한 무상교육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제도적 근거만을 가지고 교육평등이 실현되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 같다. 남한에서 형식적 평등의 충족과는 별개로 실제적 측면의 평등 실현이 미흡한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교육의 내재적 과정이나 교육결과의 측면에서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지

고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여성들이 교육기회를 획득하는데 있어 어떤 제약을 받는지, 교육의 과정상 성별분업과 성별 이데올로기의 극복수준은 어떠한지 그리고 교육의 결과, 사회적 노동참여과정과 직장내에서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의 극복수준은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교육 전반에 흐르는 지배적인 여성관은 무엇이며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북한여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 글의 목적은 북한교육에서 공식적으로 표명되고 있는 남녀평등의 가치가 교육의 물질적, 제도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행위자들의 의식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구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라 하겠다.

II. 연구방법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위해서는 북한에서 거주했던 여성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교육경험을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질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1995년 이후 남한에 들어 온 23명의 탈북여성들을 면담대상으로 삼았다(표 1 참조). 면담자들의 남한 입국연도를 1995년으로 제한한 것은 남한에 거주한 기간이 길면 북한에서의 경험들이 희미해지거나 남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해석될 경향이 있어서이다.

<표 1> 내담자의 기본 사항

사례	연령	직업	성분	학력	가정형편	거주지역
1	50대	기 자	핵심계층(당원)	김책공업대학 금속공학	보통	평양시
2		사회급양관리소 요리사	핵심계층(당원)	의학전문학교	보통이상	함경도 (중소도시)
3		유치원 원장	핵심계층(당원)	농업대학 농기계학과	보통	함경도 함흥시
4		전업주부	동요계층(당원)	경공업대학 방직공장	이주잘사는편	함경도 함흥시
5		교원강습소 교원 및 경리	동요계층(당원)	남포대학 경제학과	보통이상	평안도 (중소도시)
6		전업주부	적대계층(비당원)	고등중학교	가장못사는편	평안도 (탄광)
7	40대	담배공장 경리	핵심계층(당원)	철도전문대 여객전문과	보통	평양시 (대도시)
8		직장통계원	핵심계층(당원)	광산금속대학 기계공학	보통	황해도 (중소도시)
9		전업주부	핵심계층(비당원)	공장대학 기계전공	보통이상	평안도 (중소도시)
10		전업주부	핵심계층(당원)	고등중학교	가장못사는편	함경도 (탄광)
11		기 자	핵심계층(당원)	김일성종합대 문학과	이주잘사는편	평양시
12		식당지도원	핵심계층(당원)	고등중학교	보통	평양시
13		광산분석공	동요계층(비당원)	해주사범대 화학과	보통이상	황해도 (읍면)
14		디자이너	동요계층(비당원)	상업대학 의상디자인과	보통	자강도 (중소도시)
15	30대	성악가수	핵심계층(비당원)	성악대학중퇴	보통	양강도 (중소도시)
16		연료공급소 공급원	핵심계층(군입대, 당원)	김일성정치대학 정치학	이주잘사는편	평양시
17		술제조공	동요계층(비당원)	식료전문대	보통이상	함경도 (중소도시)
18		품질감독원	적대계층(비당원)	경공업대학 발효공학	보통이상	양강도 (중소도시)
19		변역원 재택근무	적대계층(비당원)	박사원 4년	보통이상	평안도 (중소도시)
20	20대	농 부	핵심계층(비당원)	고등중학교	잘사는편	함경도
21		체육관 직원	핵심계층(비당원)	고등중학교	잘사는편	평안도 대도시
22		학생	동요계층(비당원)	고등중학교 중퇴	잘사는편	함경도 (중소도시)
23		학생	적대계층(비당원)	고등중학교 중퇴	가장못사는편	함경도 (농촌)

면담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연령별로는 10-20대 4명, 30대는 5명, 40대는 8명, 50대는 6명이고 직업별로는 교사·교수직 2명, 직장인 15명, 학생·주부 6명으로 면담자의 73%가 북한에서 직장생활을 계속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 보았을 때 함경도·양강도 10명, 평안도·자강도 11명, 황해도·강원도 2명이며 이 중 대도시는 11명, 중소도시 7명, 군·읍은 5명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2000년 9월 8일~11월 8일까지 질문지조사와 구조화된 면담을 수행하였다. 우선 면담자들에게 구조화된 질문지를 먼저 작성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정리하여 심층면담시 되물어 봄으로써 연구의 일반성과 심층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설문지의 구성내용은 크게, 교육기회의 평등, 예비조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완성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것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²⁾. 또한 분석내용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면담대상자 중 핵심계층 1명과 적대계층 1명에게 용어의 적절성, 부적절한 해석여부 등에 대해 검토자문을 의뢰하였다.

면담자 선정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탈북여성들의 학력 및 성분을 충분히 고려하고자 하였으나 본 연구에 응한 탈북여성들의 성분과 학력이 핵심계층(23명 중 13명)과 대학졸업자들(23명 중 16명)에 편중되었다. 이는 연구의 편의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여성만으로 한정했다는 점과 다른 계층의 탈북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조사에 응하기를 꺼려했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북한여성들의 교육적 경험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의 면담결과는 향후 북한 여성교육에 대한 연구를 위한 충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형식적인 교육을 실제 북한여성들이 어떻게 받아 들이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여성들의 교육경험을 잠재적 교육과정에 한정하였다. 형식적 교육과정을 통해 본 북한여성의 교육경험은 민무숙 외(1999), 『북한의 여성교육에 관한 연구』를 참조하길 바란다.

<표 2> 설문지의 내용구성

대영역	중영역	세부사항
교육기회의 측면	학교진학시기	탁아소·유치원,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대학교에 다닌 시기
	대학진학	대학진학 경로
	사회교육	소년단의 가입시기 및 가입기준
	교육경비	학교에서 무상으로 지원되는 부분
교육과정의 측면	교육목표	각 학교급의 교육목표, 여학생에게 강조된 덕목, 남학생에게 강조된 덕목
	학교활동	여학생이 주로 한 활동, 남학생이 주로 한 활동,
	교육활동	선호과목, 비선호과목, 성교육, 남녀관계, 교과서의 여성인물과 본받고 싶은 여성인물, 전통적 여성상에 대한 교사의 언급정도
교육결과의 측면	진로결정과정	진로상담경험
	진로유형	대학진학비율, 취업비율, 군입대 비율, 남녀가 주로 선호하는 대학·직업
	직업배치현황	직업배치과정, 배치이유, 이직경로
	직장생활	직장생활의 어려움, 여성직장인에 대한 기대, 조직
남녀평등의식		전통적 여성상에 대한 수용정도 학교 및 직장에서의 남녀평등의 동의 여부,

II. 교육기회의 평등

북한에서는 11년제 의무교육제도가 일찍이 확립되었기 때문에 고등중학교까지는 성별, 성분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해 차별적인 교육기회를 부여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탈북여성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들이 적용 받았던 의무교육의 연한은 상이하지만 중등교육 수준까지는 중간에 끊김 없이 모두 다

교육을 받았다. 그렇다면 교육기회의 일차적 제약이 일어날 수 있는 시점은 의무교육 연한이 끝나는 대학교육과 다양한 사회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북한여성들이 대학진학시 그리고 사회교육에서 교육기회를 획득하는데 어떤 제약을 받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대학교육

북한은 1985년 이후 11년제 의무교육이 완전히 실현되었다는 판단 하에 ‘전 사회의 인테리화’라는 고등교육의 대중화를 도모하기 시작했다.³⁾ 고등교육 대중화 정책은 기존에 성분중심의 추천제도에서 실력중심의 추천제도로 대학선발고사제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해방이후 김일성 유일사상체제가 확립되면서 70년대까지만 해도 성분이 중시되어 추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추천중심의 입학전형은 성적보다는 권력, 연줄, 뇌물 등에 의해 좌우되는 등 우수학생들이 진학하지 못하는 병폐를 낳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대학입학 예비시험이라고 하는 국가자격고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여성의 대학교육 진입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동요계층이나 적대계층의 여성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비록 제한된 인원이지만 탈북여성들의 학력과 성분간의 관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는데 변화된 입학전형제도의 혜택을 받은 30-40대의 적대계층 여성 모두 단과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30대의 적대계층 한 여성은 박사원과정까지 수료하였다.

그렇다고 대학진학시 성분의 중요도가 사라졌다고는 단정지을 수는 없을 듯 싶다. 대학응시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시험성적이 일정 순위 안에 드는 것이 필수이지만 어느 대학에 응시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데는 여전히 출신 배경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3) 인테리화 정책이란 모든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대학졸업 정도의 수준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리영복, 1984).

- (1) 성분이 나쁘면 공부를 잘해도 김일성종합대학은 못 갔습니다. 그런
힘듭니다. 우리 학급에도 그런 아이들이 두, 세명 있었는데, 수학도
좋고 모든 게 좋았는데(사례8).

일반적으로 동요계층이나 적대계층 여성들이 주로 입학하는 대학은 단과
대학이나 경공업대학 등이 주류를 이룬다. 따라서 성분에 의한 기회의 제약
이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 대학에 특정 집단의 입학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성분에 의한 차별적인 교육기회 부여는 또 다른 방식으로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여성들의 대학진학에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성별이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는 대부분의 남학생들이 군대에 지원하는 북한의 사회적 현실을 감안
해 본다면 여학생들의 대학진학은 남학생들의 그것보다 높아야 하는데 실제
는 그렇지 않다. 면담을 통해 알아본 결과 이는 대학·학과별로 정해진 남녀
비율, 제대군인 우대 정책, 만 21세로 여성의 연령 제한, 기혼여성의 입학 금
지, 유학생 선발에서의 여성 배제 등과 같은 제도적 제약때문인 것으로 나타
났다.

- (2) 학교에서 발표를 안해서 그렇지 각 대학들에는 내부적으로 여학생 비
율 얼마, 남학생 비율 얼마 규정되어 있어요, 시험하고 관계없이 일반
적으로 여학생의 비율이 낮죠. 물론 그 비율이 대학별로 조금 틀려요,
상업대학 경공업 대학들은 여자비율 60%정도로 높고. 김책공대는 남
자비율이 거의 70~80% 될 거예요(사례11).

일반적으로 대학의 구성원을 보면 제대 군인 70%, 직장근무자 20%, 직통
생 10% 이었다(한만길, 1997). 이러한 구성비율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대군
인의 절대다수가 남자라는 점과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연령제한으로 인해 직
통생으로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의 대학입학정책은 남성중심적이
라고 할 수 있다. 남성중심적 입학정책은 성별에 따라 기대되는 생산성, 역
할이 다르다는 전제하에 여성들의 교육기회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교육수준과 역할을 제한하는 효과까지 있어 여성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재생산하는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여성들의 대학진학기회를 제한하는 요인 중 또 다른 하나는 경제적 배경이다. 물론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북한교육제도에서 가정형편으로 인한 제한은 기회 그 자체의 차단이라기 보다는 교육의 질과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실제 등록금 같은 것은 안내지만 학교에서 가져가는 게 있고 90년대 이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학교에 필요할 것을 다 들여놓지 못해요. 그리고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하는데 많은 것을 요구하죠(사례5).

(4) 학교에서 주는 배급 가지고는 공부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집에서 정말 자기네가 못 먹고 못 쓰고 아껴서 돈을 보내면 그걸 가지고 조금씩 하루에 한끼라도 사서 보태먹어야 돼요(사례8).

탈북여성들에 의하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수업료 이외의 식대, 책값, 교복, 기숙사비는 학생 개인이 부담한다고 한다. 이럴 경우 집에서 보탬이 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중도포기 하거나 처음부터 교육기간이 짧은 전문학교나 단과대학, 집에서 통학 가능한 근거리 대학을 선택하게 된다. 가정형편으로 인한 대학선택의 제한은 남정보다는 여성의 경우에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남한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부모들이 딸보다는 아들의 대학진학을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2. 직업교육

북한에서 직업교육은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제"를 의미한다. 1961년부터 경제계획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기술자와 노동력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의도 하에 정책적으로 펼쳐졌는데 지난 1980년대에 들어서 비로소 제도적인

발전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직업교육의 활성화 정책은 여성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성들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질을 높여야 합니다. 사회에 나와 일하는 여성들이 자질을 높이지 않고서는 아무리 일을 잘하려고 하여도 잘할 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집』26권, p389).

이같은 김일성의 교시 하에 북한은 여성들의 과학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해 여성들을 기능공학교, 직장기술학교, 통신교육망에 널리 망라시켜 그들을 기술자, 기능공으로 자라도록 하였다(리경혜, 1990). 또한 1982년부터는 ‘인테리화 정책’과 맞물리면서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 통신교육체계를 확장하고 텔레비전 방송대학 등을 도입하는 등 여성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려고 하였다.

하지만 탈북여성들과의 면담결과 당정책과는 달리 실제 여성들의 공장대학 등을 비롯한 직업교육의 입학률은 남성들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5) 공장대학 그 자체가 북한사회에서는 좀 힘들거든요. 여자들이 여덟 시간 근무한 후에 공부한다는 것이 힘들어요. 그리고 북한사회에는 경쟁이라는 것이 없다보니까 경쟁 안해도 직장 나가서 여덟 시간 근무만 하면 돈이 나오고 세 끼 밥먹고 사는 것 해결해 주니까 여자들이 악착같이 다니는 경우는 드물죠(사례3).

직업교육에 대한 여성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가장 우선적인 이유로는 장기간의 교육기간을 들 수 있다. 북한은 직업교육의 수준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교육연수는 보통 5년 내지 6년이며, 강의는 주로 직무가 끝나는 저녁시간에 이루어진다(『김일성저작집』 22권). 직업교육을 받게 되는 시기는 2-3년의 직장생활 후인데 그 뒤에 5-6년간 직업교육을 받게 되면 자칫 결혼 적령기를 놓치게 된다. 또한 저녁시간에 주로 이루어지는 강의는 가정과 사회에서 이중 역할을 해

야하는 기혼여성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기도 한다.

이외에 직업교육이 북한여성들에게 있어 큰 메리트가 없다는 것도 여성의 참여율을 낮추는 한 요인이다. 북한여성들이 전문학교라도 진학하려는 것은 깨끗하고 편안한 직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인데 공장대학을 졸업해도 직무의 성격이 바뀌거나 승진기회가 부여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북한여성들에게 있어 “힘든 여건 속에서 악착같이 살아야겠다”는 동기유발이 일어나지 않는다. 더군다나, 교육과정 자체가 남성중심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여성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이미 제한되어 있다. 한만길(1998)의 연구를 보면 1990년 현재 약 100여개의 공장대학 중 방직이나 염색가공 등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는 기업소의 공장대학은 몇 군데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7년제/9년제 의무교육기간에 학교를 다닌 여성들의 경우 공장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는 고등기술학교를 별도로 졸업해야 한다. 『김일성저작집』 24권에서도 공장대학에 가고 싶어도 고등기술학교를 나오지 못해 대학공부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북한여성들도 이러한 자격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직업교육의 기회가 남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열려져 있지만 여성에게는 큰 메리트로 작용될 만한 것이 극히 적다는 점에서 암묵적으로 교육기회가 남녀 성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배된다고 할 수 있다.

3. 정치교육

북한은 여성들에게 개인주의적 성향을 없애고 공산주의사상과 김일성 유일사상을 주입하기 위해 정치교육을 통해 집단주의적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정치교육의 일환으로 소년단, 청년동맹, 여맹과 같은 조직생활을 여성들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인민학교 3학년부터 고등중학교 4학년까지 하는 소년단활동과 고등중학교 4학년부터 30세까지 하게 되는 청년동맹활동의 입단기준은 학업성적이나 학교생활이다.

(6) 소년단은 성분이나 성별에 관계되는 게 아니고, 공부, 학교생활 따지

조. 애들 때는 공부 잘하면 최고예요. 3차로 나누어서 하는데 1차에 할 때에는 한 학급에서 한 일곱 여덟명 들어가죠. 1차에 입단하면 아주 영광스러운 거죠(사례18).

학교교육을 받은 후에는 직장 여성일 경우는 직맹, 전업주부일 경우는 여맹에서 조직생활을 하게 된다. 직맹은 당에 입당 못한 기혼 직장여성이 가입 대상이며 가입절차는 자동적으로 청년동맹에서 직맹으로 넘어간다. 여맹의 가입자격은 입당을 못한 전업주부이다.

정치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해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여성들이 성별, 성분 등에 의한 기회의 불평등을 경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정치교육의 목적이 김일성과 당에 충성하는 인간으로 각 개인을 개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점을 보면 단 한사람의 낙오자나 이탈자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요컨대, 교육기회의 측면에서 보면 의무교육기간 동안에는 성분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대학교육부터는 성분이 안 좋고, 지방에 있는 여학생일수록 대학에 진학하기가 힘들다. 이는 동요계층과 적대계층에 대한 차별, 여학생에 대한 낮은 입학할당과 같은 제도적 제약과 가정형편과 같은 개인적 제약이 맞물려 나타난 결과이다. 사회교육 중 직업교육의 접근 기회에 있어서는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이 남성직업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결과 여성들에게 큰 메리트로 작용될 만한 것이 극히 적다는 점에서 여성들의 참여수준은 매우 낮다. 이는 가사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들의 자의적인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여성의 직업교육을 자극할 만한 기제가 없다는 점에서 사회제도상의 문제점으로 보인다. 성별과 성분은 사회적 제도와 맞물려 가장 심각한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유발하는 원인이며 가정형편은 교육의 참여 수준과 질을 결정하는 요인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여성들은 암묵적으로 남성들에 비해 이중 삼중으로 교육기회를 제한 받는다고 할 수 있다.

III. 교육과정에서의 사회화 방식

일반적으로 북한교육은 자주성과 창조성을 지닌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는 것을 교육이념으로 삼고 이를 위한 기본 원리로 사람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안기성 외, 1999). 이러한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와 원칙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여성에 대한 교육의 목표 역시 공산주의적 혁명사상을 투철하게 지니고 개인보다는 집단을 중시하는 인간으로 키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명목적인 교육목표가 북한여성교육의 목표를 전적으로 포괄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면담결과는 남녀모두에게 적용되었던 교육목표 이외에 교사의 언급, 교과서에 제시되고 있는 여성인물 그리고 일상화된 학교 관례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여성들에게만 강조되었던 것들이 있어왔다고 분석된다.

1. 여성다움의 강조

탈북여성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여학생에게는 ‘품행단정’과 ‘예절’이 중요시되었다고 한다.

- (7) 저희 어렸을 때는 예절교육이 강조되었죠. 여자는 남자보다 인사가 밝아야 된다, 집에서도 어른들이 술갈을 든 다음에 들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남자들 사이에 지나가면 안 된다, 모임장소 같은데 가서 큰소리로 떠들거나 남자들과 이야기할 때 크게 이빨이 보이면 안 된다고 했죠(사례3).

이와 같은 내용은 명목적으로 제시되었던 남성과 동등하게 공산주의건설에 조직적으로 투쟁하는 여성과는 다소 상반된 이미지이다. 그렇다면 북한여성들은 이러한 내용을 어떤 기제들을 통해 강화받았을까? 우선은 의도적이든 무의도적이든 교사의 언급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탈북여성들은 교사로부터 “여자가 여자다워야지, 여자답게 하고 다녀야지”(73.9%)와

“여자는 깔끔하고 얌전해야 한다”(65.2%)를 많이 들었다고 한다.

- (8) 선생들은 여자가 남자에게 대들면 못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자가 나서지 말아야 할 때 나서거나 남자처럼 고질적으로 신경질을 부리거나 팔팔거리면 그런 여자를 “남자변지기”라고 해요. 선생님들은 여자는 여자다워야 될 때는 여자다워야 한다는 말을 해요. 그렇다고 그것이 아예 바보처럼 남자들 앞에서 몰라라 그런 말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요(사례3).

교사들이 언급하는 여성다움은 “외유내강”형으로 겉으로는 부드럽고 남성들에게 순종적이고 겸손한 동시에 자신이 맡은 바는 철저히 해내는 강인한 여성이다. 이는 탈북여성들이 교사로부터 “여자는 약하니까 남자들이 보호해야 한다”(21.7%)라는 소리를 거의 듣지 못했다는 것과 연관 있어 보인다. 또한 교사들은 “여자가 하는 일, 남자가 하는 일 따로 구분하는 것이 좋다(17.4%)”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실제 가정과 학교생활에서 남녀의 역할구분이 명확한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학교 안에서의 성역할 구분은 명시적 교육과정정보보다는 일상화된 관습을 통해 내면화되었다 하겠다.

또 다른 방식은 남학생들이 선호하는 여성상과 학교의 규율 및 생활총화를 통해서 이다.

- (9) 대학 때 남자 동기생들이 깐깐하고 찬찬하지 못한 여자들보다는 차분한 여자들을 많이 좋아했죠. 그러면 여학생들은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죠(사례10).

남학생들이 선호하는 여성다운 이미지에 의해 여학생들은 자신의 활동적인 성격이나 언어 등을 수정하게 된다. 또한 수시로 행해지는 복장검열이나 생활총화로 인해 여성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검열하게 된다. 예를 들어 노력동원을 나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학생들은 항상 치마를 입어야 한다는

학교 규정은 여학생들에게 활동적인 행동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이처럼 북한교육은 여학생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는 여자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각인시킨다.

북한여성들이 스스로 여성다움을 몸에 지니게 되는 데에는 일정정도 북한 교과서에 제시되고 있는 여성인물들의 특성에서도 그 영향이 있다. 우선, 교과서에 강조되는 여학생의 단정한 몸차림은 한결같이 치마를 입고 있으며 어떤 직종에서 일을 하던 여성들은 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상 치마를 입은 모습이다. 결국, 단정한 몸차림이란 여성들에게는 ‘치마를 입은 모습’이고 그것이 이상적으로 여학생들에게 교육되어지는 것이다.

북한교과서에 등장하는 여성인물로는 강반석, 김정숙, 춘향이, 심청이, 빨치산 여성들(최일화, 김명화, 김금순, 안순화, 한영애 등), 한석봉 어머니, 신사임당, 아동단원 김금순, 유관순, 설죽화, 민비, 계월향 등이 있다. 이 여성인물들의 직업이나 활동은 상이해도 일반적으로 공통된 이미지가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 사실이다.

(10) 김명화는 어려서부터 혁명활동에 나섰으니까, 장수같고, 억새 보일 것 같지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인물도 예쁘고, 성품도 아주 고상하고 여자다웠어요(사례8).

(11) 김정숙어머니는 어느 면으로 보나 모든 것이 만능이고, 다방면적으로 뛰어난 여성으로 못하는 게 없어요. 총주면 총 잘 쏘지, 여성으로서 바느질 잘하지 뭐 세대주 김일성 잘 섬기지, 희생정신도 투철하지.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있지. 너무 위대하고 다방면으로 뛰어난 사람으로 떠올라요. 김정숙어머니와 똑같은 못 되지만은 어디서나 모든 면이 뛰어난 만능인 그런 사람이 돼야 겠다고 생각을 했어요(사례16).

김명화처럼 북한교육에서 제시하는 여성인물 대부분은 강인하고 자신의 일은 알아서 하지만 여성미를 간직하고 있다. 이는 교사들이 강조하는 외유

내강형 여성상과 일맥상통한다. 북한사회에서 이러한 여성상의 대표적 인물은 김정숙이다. 실제 북한은 김정일의 어머니이면서 김일성의 아내인 ‘김정숙 따라배우기’를 70년대 중반부터 『조선녀성』이라는 잡지를 통해 시작했으며 99년 이후부터는 공식적인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김정숙은 북한여성들에게 여성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잣대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남성들의 가부장적 의식을 더욱 강화시키기도 한다.

(12) 남자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조선의 어머니처럼 해라. 김정숙·강반석은 어떻게 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사례17).

조선여성의 삶의 전형으로 강반석, 김정숙을 생각하며 교육을 받고 자란 남성들은 부부관계나 직장생활에서 여성들에게 순종적이고 헌신적인 태도를 은연중에 요구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여성들을 여성답지 못하다고 비판한다. 그래서 탈북여성들은 북한에 거주할 당시 남녀관계에서 잘못된 면이 있는 듯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이려니” 하면서 살았다고 한다.

2. 남녀간 역할구분

이러한 성별에 따른 전통적 방식의 역할구분은 학교생활 전반에 나타나고 있다. 학교생활에서 남학생들이 주로 교실 밖에서 무거운 짐을 운반하거나 운동장 청소를 하는 반면 여학생들은 교실 안에서 청소나 김일성 초상화 정화작업을 한다.

(13) 여자들은 톱밥으로 교실바닥을 청소해요. 남자들이 방(교실)청소 안 했어요. 남자들은 마당(운동장)청소를 했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나가서 불 차고 그래요(사례7).

교실을 ‘방’, 운동장을 ‘마당’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학교공간을 가정의 연장선상에 두고 있는 것이다. 가정에서 방청소를 대부분 여성이 하는 것처럼 학교에서도 교실은 당연히 여학생의 몫이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점은 이러한 성역할 구분을 대부분의 탈북여성들이 당연시한다는 점이다. 여성은 육체적으로 남성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남학생이 힘든 일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 남녀차별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수평적 역할구분은 여성에 대한 배려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평적 차원에서만 역할분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북한여성들은 인민학교에 입학하면서 다양한 조직활동을 시작한다. 조직생활시 간부의 남녀비율은 수적으로 일정정도 균형을 맞추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지나치게 한 쪽 성별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인상을 갖게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역할구분과 지위를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소년단, 청년동맹의 경우 남학생들이 주로 중요한 직책을 맡는 반면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의 보조 역할을 한다.

(14) 최고의 자리나 위원장은 항상 남자이고 부책임자에는 남자들 사이에 여자가 끼여있어요. 제가 고등중학교 다닐 때 역시 단위원장은 항상 남자 아이였고, 단부위원장은 남자하나 여자하나 이런 식으로 했어요(사례11).

(15) 여학교일 경우는 여학생 모두 학교활동에 당당히 참가할 수 있죠. 여학생들만 있기 때문에 남자들 때문에 불리하거나 손해보는 것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학교활동이나 단체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부심과 긍지를 발휘할 수 있죠(사례7).

남녀별학보다는 남녀공학인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한 것으로 보인다. 여학교일 경우, 모든 역할 분담을 여학생들 내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어떤 일든 여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기존 연구(이태영, 1988)에서 제시된 것처럼 북한여성들의 가부장적 성향이 단순히 남녀별학정책에 의한 차별적 교육과정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직생활에서의 위계적 서열관행은 남자는 지시하는 사람, 여자는 순종하고 양보하는 존재로 규정하는 효과가 있어 북한여성들은 남성을 동지적 관계보다는 주의하고 존중해야 할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남녀학생간의 용어사용이다.

북한여성들은 연령에 관계없이 남자를 존대해야한다. 여성들은 보통 두 살 이상의 손위 남성들에게 ‘동지’라고 부르며, 웬만큼 친한 사이가 아니고서는 손아래 남성들에게도 ‘동지’라고 부른다. 하지만 남성들은 손위의 여성들에게 동지가 아닌 ‘동무’라고 호칭하며 손아래일 때는 이름만 부르거나 반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연합뉴스, 2001). 그래서 학급 내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게 대든 다든지, 싸움을 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16) 남자들이 여학생들을 깔보고 아무 짓이나 막 하려고 할 때가 가끔 있었어요 그때 나는 내 성격을 참지 못하고 싸움을 하면 저만 죽이 되도록 욕을 먹어요. 잘못은 남학생이 했어도 여자가 싸움을 하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죠(사례22)

이러한 남녀관계는 표면적으로 북한교육에서 제시하는 남녀평등사상과는 상반된다. 교과시간에는 여자도 남자와 동등한 존재이고 북한사회를 이끌어갈 한쪽 수레바퀴라고 배우지만 여학생들이 내면화하는 것은 남녀는 유별하다는 봉건적 윤리인 것이다.

3. 북한교육에서 강조하는 여성상

그렇다면 북한이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해 길러내고자 하는 여성상은 무엇인가?

우선, 북한은 표면적 교육목표를 통해 강조되었던 것처럼 노동의 주체로서 노동에 참여하는 혁명적이고 적극적인 여성들을 길러내고자 한다. 이는 노동애호 정신 하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 활동하며 집단주의 정신 하에 인민사회와 집단을 위해 헌신하는 여성, 책임감 있게 자기가 맡은 일은

혁명적 의지를 갖고 성실히 수행하는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여성상은 여성의 노동계급화와 관련이 있다. 북한여성들의 삶에 있어 노동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삶의 방식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이다. 하지만 이때 노동은 잉여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노동에만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가사와 양육은 노동으로 간주되지 않은 채 여성의 의무로만 부과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노동 중시사상은 “직장생활을 하는 삶과 전업주부로서의 삶 중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의 질문에 23명 중 21명의 탈북여성들이 “일하는 여성의 삶을 선택하겠다”고 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동시에 북한은 교육을 통해 겸손하고 예절바르고 자기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여성, 자녀교양의 책임자로서의 여성을 길러내고자 한다. 북한교육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리고 노동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남녀가 평등하다고 가르치지만 가정에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양육을 책임지고 직장에서 남자보다 낮은 지위에 머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가르침으로써 전통적인 여성상을 지향한다.

그러면 북한 여성들은 전통적인 여성관에 얼마만큼 동의하고 있을까? 북한 이탈여성들에게 전통적 여성상을 표현하는 문구를 제시하고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5점 척도로 조사해 보았다. 조사결과, 탈북여성들은 “여자가 여자다워야지 여자답게 하고 다녀야지”(80.9%)와 “여자는 깔끔하고 얌전해야 한다”(66.7%)에 가장 많이 동의하고 있다. 이는 교사에 의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더 흥미롭다. 결국, 학교에서 강조되는 여성다움을 대부분의 북한여성들이 여자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품성이나 몸가짐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시대에 따라 특정 한쪽이 더 많이 강조되기도 하고 국면에 따라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북한교육은 여성다움을 간직한 채 사회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양가적 가치를 지닌 즉, “외유내강형” 여성을 길러내고자 한 것이다.

결국, 교육과정 역시 성별에 따른 역할구분과 성분에 의한 제약이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인 교육목표에서는 실력증진과 김일성 우상화가 중시되고 있지만 여학생들에게는 이외에 여성다움이 강조되었다. 이는 자기가 맡은

바를 철저히 해내는 강인한 여성인 동시에 남편과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전통적인 여성이다. 또한 학교활동에 있어 남녀학생간에는 남자는 밖, 중요한 위치/여자는 안, 보조적인 위치라는 전통적인 남녀유별사상이 표면화되어 있다. 이러한 성역할 구분은 북한여성의 직업 참여수준과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중요하다 하겠다.

IV. 교육결과의 평등

북한은 여성의 사회참여가 여성해방의 문제와 직결됨을 강조하면서 여성들을 가정이라는 사적영역에서 벗어나 사회제반 영역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북한여성들이 원활한 노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일노동, 동일임금제를 비롯해 다양한 남녀평등적인 제도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것처럼 노동영역에서 남녀가 평등한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진로 유형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면 북한여성들의 진로는 크게 취업, 진학, 군입대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취업을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비율은 탈북여성들이 고등중학교를 다닌 시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탈북여성들의 면담을 통해 보면 60-70년대에는 70%이상의 여학생들이 취업을 했지만 80-90년도에 들어서는 그 비율이 약간 낮아지고 있다. 반면 한 학급당 20%미만의 대학진학률이 80-90년도에 들어서는 30%로 급증하기도 한다. 따라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기 이전만 해도 전반적으로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증가추세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진학률 증가는 북한의 변화된 대학입학 전형방식과 인구학적 특성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80년이후 실력중심의 추천제도로 전환시키면서 북한은 제대군인이나 직장인의 비율을 줄이고 직통생의 추천비율을 높였다.

대학별로 남녀입학생 비율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직통생 증가로 인해 여학생의 대학입학이 수월해졌다고는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여학생의 입학에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북한 사회에서 “남자는 군대를 갔다와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북한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1970년대 중반부터 시행된 가족계획으로 인해 1980년대 후반부터는 한 두 명의 자녀를 둔 가정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자녀수가 줄어들면서 딸도 대학교육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고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여성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이유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이거나 “깨끗하고 편안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남학생들은 “좋은 직업과 성공을 위해서”이다.

- (17) 대학을 졸업하면 좋은 신랑감을 맞이하기가 쉽죠. 그래도 여자가 대학을 졸업해야 대학 졸업한 남자를 만날 수 있죠. 내가 고등중학교 졸업했는데, 대학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려면 쉽지 않단 말입니다. 다 비슷한 데서 찾으니까(사례2).

남녀간 대학진학 이유의 차이는 선호하는 대학 및 전공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 직업에서의 차이를 유발한다. 대부분의 남학생들은 대학졸업 후 정치일군이나 전문기술자가 되길 원하기 때문에 김책공대, 김일성 종합대학과 같은 공과계열이나 정치계열을 선호한다. 반면 여학생들은 경공업대학, 사범대학, 의대를 선호하는데 이는 평생직장이 될 수 있는 의사가 되거나 가정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경리부문의 사무일군으로 일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북한여성들이 교사와 상담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한 개인의 진로는 교사의 노력이나 학생 개인의 능력보다는 노동분과위원에서 임의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교사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극히 미약한 편이다. 특히 적대계층의 탈북여성들 중 교사로부터 격려나 조언을 받아본 경험이 거의 없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2. 직장배치 경향

탈북여성들의 직장배치를 살펴보면 학력, 성분, 성별이라는 요인을 기준으로 국가 주도의 배치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직장생활을 한 탈북여성들의 경험을 보면 출신성분이나 경제적 형편이 좋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생산직에 배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산현장에 여성노동력을 배치하는 것은 1960년 초반 84호 내각결정에 의한 것이다. 여성노동력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노동부분의 남성들을 힘든 중노동 부분으로 이동시키고, 험한 일을 여성들이 하게 하였다. 따라서 청장년들은 탄광, 광산, 임업, 수산업 등에 재배치되고 방직공장의 수리공, 농촌의 양수기운전공에 여성들을 배치하였다(리경혜, 1990).⁴⁾ 특히 농업분야의 여성노동력 의존경향은 매우 뚜렷하다.

(18) 농장원 자녀들은 무조건 부모 따라서 농사지어야 해요. 거기서는 부모가 농사지으면 무조건 농장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간부 자녀들은 다 빠져 나가요(사례9).

<표 3> 고등중학교 졸업생의 직장배치

연령	성 분	첫 직 장	2차	3차
50대	적대계층	기계수리공장 노동자	광산 압축기 운전공	전업주부
40대	핵심계층	견직공장 직포공	탄광 펌프운전공	전업주부 : 협동농장 농민
	핵심계층	식당지도원	전업주부	
20대	핵심계층	농부		
	핵심계층	호텔의례원	체육훈련소 관리원	탁구관 관리원

4) 이하진(1993)은 『로동신문, 조선녀성에 나타난 북한의 여성상』에서 여성과 남성간의 직종간분리현상을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안고 있는 북한의 현실 한계와 여성이 남성과 다르게 모성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신체적으로 약하다는 점에서 여성의 노동을 정책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정책의 실현을 추구하는 이념적 특수성이 결합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사회에서 노동자는 남자로 형상화되지만 농민은 언제나 벼단을 안고 있거나 낫을 들고 있는 여성으로 형상화된다는 점에서도 농촌부문에서 여성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95년 기준 농업부문에서 여성인구가 53%를 차지해 남성의 수를 앞서고 있다(조선일보, 2000).

대학을 졸업한 북한여성들의 경우 역시 자신의 희망대로 직장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탈북여성들의 직장경로분석결과, 사범대와 의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여대생들은 동일한 과정을 이수해도 남성과는 다른 방향으로 직장에 배치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19) 김일성종합대학을 남녀가 똑같이 졸업하고도 직장배치는 상당히 틀려지죠. 당 간부 쪽으로는 여자들이 거의 못 갔어요. 여자들의 입장에서... 많이 좌절돼요. 왜냐면 특히 중앙당 같은 경우에는 아주 조금 뽑거든요. 당, 간부를 등용하는 거는 아주 적어요. 그러기 때문에 일반 행정간부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당 간부는 정말 힘들어요, 실제 북한은 행정간부가 운영하는게 아니라 당 간부가 운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자들이 실질적인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이 힘든 편이죠. 또 여자들이 대외부문 같은 쪽으로 가는 것도 거의 드물죠(사례10).

핵심계층이면서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대부분의 남학생들이 당·정기관 및 경제 각 분야의 핵심간부 요원으로 등용되는 현실과는 대조적으로 여학생들은 기자, 교수 그리고 일반 기업에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짚고 넘어갈 것은 여성의 경우, 대학진학 시에는 성분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직장배치 시에는 성분에 상관없이 성별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는 것이다. 동요계층과 적대계층의 탈북여성 모두 자신의 희망과 상관없이 대학과 학과에 입학한 반면 핵심계층 탈북여성들은 9명 중 6명이 자신의 희망대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장배치에는 핵심계층의 탈북여성 9명 중 5명만이 희망하던 직장에 배치되었다.

북한여성들의 이직 원인 역시 결혼이나 남편의 전근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 (20) 결혼하기 전에 전문학교 교원을 하다가 남편이 해주로 가면서 제가 따라 갔어요. 따라가다 보니 그곳에는 대학이 없어 교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직장 통계원 자리로 들어가게 됐죠(사례8).

단순히 남편의 직장 근무지 이동으로 인해서 이직하기 때문에 옮긴 지역에 전에 근무한 부문의 직업이 없을 경우는 새로운 직종으로 취업을 하거나 전업주부로 남게 된다. 이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처음 배치받은 직장과의 일관되게 이직하면서 전문성을 획득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그래서 높은 사회참여율에도 불구하고 북한여성들이 평생직장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남성에 비해 동일한 직종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평생직장이 될 수 있는 직종은 전문직보다는 어디에 가도 있는 흔한 직종이다.

3. 직장내 역할구분

북한사회에서 남성과 동일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권과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사회주의 노동법 제 37조에 명명되어 있다는 점에서 표면적으로 근무조건은 남녀간에 평등해 보인다. 하지만 직장 내 남녀간의 역할 구분을 보면 여성의 능력이 남성의 그것과 동일하게 평가되지는 않는 듯하다.

- (21) 기자들 중 외국에 나간 여성이 한 명도 없어요. 평양 의학대학 병원, 적십자 병원에서 외국에 안 가본 의사 없어요. 그런데 여자 의사는 한 명도 못 나가요. 여자들이 외국에 나가는 경우는 국가적으로 대표단으로 수행원으로 따라가는 경우로 그것도 만약 50명이면 3~4명 따라가는 정도죠..... 취재임무에 있어서도 남녀 기자간에 차별을 두죠. 멀리 가야 되고 넓은 안목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남자를 보내

조. 여자들은 보는 견해가 협소하다라는 생각 하에 큰 것은 남자들 내보내고 작은 것은 여자들 보내죠(사례1).

하지만 이러한 역할구분이 여성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강요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가정과 직장을 병행하기 수월한 업무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가사와 양육이 어느 정도 사회화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여전히 여성에게 있는 북한의 사회적 현실 속에서 나오는 직장여성들의 어쩔 수 없는 생존 전략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북한 사회에서 여성의 능력은 남성의 능력보다 낮게 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 직책을 수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농사를 전담하는 협동농장의 관리위원장을 제외하고는 여성들이 직장 내에서 높은 지위를 점유하기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2) 여자들이 직장생활하면서 과장, 국장정도까지는 발전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힘들어요. 과장정도도 여자가 많은 직장 내에서도 가능한 일이죠(사례11).

(23) 여자가 직장에 배치 받았다 하더라도 여자는 애를 낳아야되고 또 애들 키워야 되는 게 의무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남자들과 똑같이 일을 할 수도 없고, 또 애를 낳고 기르는 기간동안은 휴직이나 휴가를 내야되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자질이 있건, 능력이 있건 상관없이 성공은 상상도 못하고, 항상 남자들 밑에서 지시 받으며 일하는 것이 고질적으로 되어 있다고 봐야죠(사례3).

이러한 경향은 기존 연구(황무임, 1997; 차인순 외, 1992)들에서도 이미 밝혀진 바 있다. 북한의 여성 노동력비율은 1991년 현재 49%이지만 정무원급에 있는 여성 비율은 0.7% 이다. 더군다나 북한의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여성능력의 활용도에 대한 기대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24) 직장내 소규모 유치원들이 없어졌어요. 국가적인 이점에서 보면은

탁아 유치원에 대한 국가 부담이 크다 보니까 애를 두 세 명 있는 엄마가 사회진출해서 일하는 그것하고, 애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퇴출 하면서 이제 특별하게 여성들이 많은 학교나 병원 이런 부분에서 일하는 엄마들을 위해서는 시군단위로 각 구역에 유치원을 하나씩 두거나 직장의 여자 인구가 오백 내지 천 명을 넘어야만이 탁아소 시설이 들어가게 되었죠. 그 나머지는 점차로 없었거든요(사례3)

북한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면서 탁아소, 유치원의 설치 및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여성의 생산성보다 높기 때문에 각 기업이나 공장에서는 기혼 여성의 취업을 기피하는 추세에 있다.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기혼여성의 생산성 저하라는 명제에 대해 탈북여성들 스스로가 아무 거리낌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25) 군에서 정치 지도원으로 승진을 하려면 대학반을 나와야 하는데 남자는 김일성 정치대학 4년제 교육을 여자는 2년제 교육을 받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남자는 종신 복무를 합니다, 장기간, 나이가 들 때까지. 근데 여자는 일정 나이가 되면 제대를 시키는데 교육을 4년 받게 되면 교육받다 제대 돼야 될 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교육을 시키고 나면, 제대를 해야되니까 아무런 사회적 가치나 이용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년제를 함축해서 2년제로 하는 겁니다(사례16).

사례 (25)처럼 여자는 남자와 다른 신체적 구조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남성과 구별되는 교육기간과 근무조건은 차별이 아닌 여성에 대한 하나의 배려로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탈북여성들이 “어떤 대학을 졸업했는지가 직장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일상 경험을 통해 나온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결과면에서 성역할 이데올로기의 극복수준을 보면 여성의 노동참여가

북한이 표방하는 것처럼 남녀평등을 가져왔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 같다. 남성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라고 여성의 능력은 남성의 그것보다 낮게 평가되어 다른 직책, 다른 직종에 배치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배치 및 직급부여과정에서는 성분에 상관없이 일차적으로 여성이라는 성별 조건이 여성의 교육수준이나 능력에 상응하는 결과물을 취득하는 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지금까지 탈북여성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북한교육이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평등의 목표가 교육의 전 과정에서 어느 정도 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북한교육은 교육의 기회, 교육의 과정 그리고 교육의 결과면에서 성역할 이데올로기에 따른 역할 구분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었다. 성역할 이데올로기는 북한교육의 전 과정에 작용하면서 구별을 넘어 여성에게 남성과 다른 삶의 경험과 진로, 책임과 과제, 기회를 여성들에게 선형적으로 부과하였다. 이는 북한사회의 형식적·제도적 평등의 충족과는 별개로 교육의 내재적 과정이나 교육의 결과 측면에서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실현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북한교육이 제도적으로 남녀평등 교육이념을 표방하는 것과 달리 교육전반에 성역할 이데올로기가 잔존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다시 말해 제도와 현실간의 차이는 왜 일어나는 것인가? 이는 북한여성교육의 이념적 근거를 이루고 있는 양가적인 여성관과 여성노동력에 대한 낮은 평가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표면적 교육과정에서나 다양한 정치교육을 통해서 북한여성들은 자신들이 북한사회를 이끌어가는 당당한 노동주체의식을 형성하게 된다. 북한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책임지는 것은 여자이다”라는 문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은 교육을 통해 여성도 남성과 동일하게 사회에 나가 당당하게 일하고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에 기인한 것으로 여성들이 가정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회노동에 참여함으로써 여성해방을 실현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북한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원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교육을 통해 사회활동의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여성상임을 강조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북한여성들은 사회적 노동에 높은 의미를 부여하며 여성 자신도 남성과 동일하게 교육권과 노동권을 갖고 있음을 인식한다. 하지만 이러한 남녀평등은 인격적 평등이라기 보다는 노동능력의 평등을 의미한다. 또한 여성들을 노동시장에 편입시키는 대신 양육과 가사의 일정부분을 해결해 주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여성의식보다는 노동자 계급의식을 더 강조하여 성별에 기초한 억압 및 착취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하게 한다(함인희, 1996).

한편 북한은 교육을 통해 여성들에게 항상 여성으로서의 태도, 삶의 방식을 간직할 것을 강조한다. 이는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한 가부장적 여성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체사상은 실생활에서 아버지 한 명을 중심으로 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결합되어 나타남으로써 여성에게 전통성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김일성을 아버지’로, ‘당을 어머니’로 가부장적 권위주의를 강조면서(남인숙, 1992) 비록 여성들이 노동현장에 참여하더라도 그 안에서 어머니, 아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즉, 지혜로서 자식을 국가의 일원으로 충성되게 기르고 남편에게는 헌신과 희생으로 내조하는 여성, 그것이 북한교육이 여성들에게 강조하는 또 다른 면인 것이다.

북한여성교육에 흐르는 이 두 가지 원칙은 서로 상반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지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사회주의 여성관이나 주체사상에서 강조하는 여성관 모두 여성이 남성과 다르게 가지고 있는 사회규범적인 측면들 예를 들어 출산과 양육의 역할을 전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 여성관 모두 가정내의 여성의 역할을 그대로 나둔 채 여성의 노동력을 사회로 유입함으로써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여성관에 기반한 학교 및 직장생활에서의 수평적, 수직적 성별분리, 교과서 및 교사에 의해 강조되는 여성상은 모순적이라기 보다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더욱 확고하게 만드는 것은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여성

교육에 대한 투자회수율이 낮다는 인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혼여성의 생산성에 대한 회의감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며 여성 스스로도 차별적인 여성능력의 활용을 아무 거리낌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가부장적 온정주의에 입각한 북한사회에서 사회와 가정에서의 이중부담을 갖고 있는 여성들에게 협소한 범위의 노동 및 단순직무에 배치하는 것은 차별이라기 보다는 노동력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여성에 대한 배려정책의 하나로 인식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결국, 북한사회의 여성교육은 김일성 교시나 사회전반을 통해 공식적으로 강조하는 남녀평등적 사회참여의 목표와는 달리 교육을 통해 상당히 남성우위적 구조와 가치관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제도적으로는 남녀평등을 이루고자 하였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일상화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제도와 현실간의 괴리속에서 대부분의 북한여성들의 교육경험을 지배하는 것은 현실 체험 그 자체인 것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북한여성들이 “여자는 대학졸업장 10개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시집만 잘 가면 된다”라는 인식을 갖는 것도 그들의 일상에서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사회의 교육권과 노동권에 대한 평등을 단지 양적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북한원전 -

교육도서출판사(1975), 사회주의교육학. 교육도서출판사

김일성 외(1962), 전국 어머니 대회 문헌집. 조선녀성사

김일성(1962), 자녀교양에서 어머니들의 임무. 조선로동당출판사

_____(1973), 김일성 사회주의교육학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_____(1983), 김일성저작집 22. 로동당중앙출판사

_____(1983), 김일성저작집 24. 로동당중앙출판사

___(1984), 김일성저작집 26. 로동당중앙출판사
 ___(1996), 김일성전집 15(1952.5-1953.7). 조선로동당출판사
 리영복(198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교육. 사회과학출판사
 리의규(1989), 탁월한 군중정치활동가이신 김정숙동지. 근로단체출판사
 리경혜(1990), 여성문제 해결경험. 조선, 평양
 사회과학원(197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해설문고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 계급화할데 대하여》에 대하여. 사회과학출판사
 조선중앙통신사 편(1993), 조선중앙년감 1993. 조선중앙통신사
 ___(1996), 조선중앙년감 1996. 조선중앙통신사
 ___(1997), 조선중앙년감 주체 86. 조선중앙통신사

- 국내도서 -

김귀옥 외(1997), 북한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서울 : 대동
 김동길(1991), “북한교육의 기본원리와 이질화현상”. 북한연구 제2권 제1호
 김혜경 외 역, H, Hartman & Linda Burnham(1989), 여성해방이론의 쟁점 :
 사회주의 여성해방론과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 서울 : 태암
 김순배(1989), 북한의 교육실태. 국토통일원 통일연수원
 남승희(1996). “북한의 사회교육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제34권
 제1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1997), 북한의 오늘, 민주통일자문회
 민무숙 외(2001) 북한의 여성교육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박현식(1990). “북한의 여성조직 조선민족여성동맹”, 북한연구 제1권 제1호
 북한연구소 편집부(1983), 북한총람. 북한연구소
 ___(1989), 남녀평등 중노동, 북한여성 불쌍하다, 북한, 북한연구소
 ___(1989), 여성, 가정, 노동 그리고..., 북한, 북한연구소
 레닌, 편집부 역(1989), 레닌의 청년여성론, 서울 : 함성
 서성우(1989), 여성해방과 남녀평등의 참모습, 북한, 북한연구소
 서영준(1989), 북한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해방전략, 북한, 북한연구소
 신현옥 외 편역. Michele Barrett(1995), 페미니즘과 계급정치학, 서울 : 여성사

- 안기성 외(1998), 남북통일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의 역할, 서울 : 집문당
- 연합뉴스편(1995), 2000 북한연감, 서울 : 연합뉴스편
- 이경숙(1990),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와 여성, 북한여성의 실태. 한국여성정치연구
구소
- _____(2000), “북한의 정치 : 가부장적 유일지배체제”. 21세기 북한, 서울 :
나남출판사
- 이경하(1993), 노동신문, 조선녀성에 나타난 북한의 여성상-1985년부터 1992년까지
지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화(1996), 북한여성의 윤리관,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여성의 삶에 대한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 _____(1996), 사회주의 이념과 남녀평등, 통일문제학술세미나 : 북한여성, 이화여
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 이승희 역. 우에노 치즈코(1994),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서울 : 녹두
- 이온죽(1990), “북한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사회참여”. 북한연구 제1권 제1호
- 이은영(1993), 북한공장대학 연구 ‘교육과 노동의 결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태영(1988), “북한의 여성해방정책과 가부장제” 북한연구 제1권 제1호
- 임순희(2000). 북한의 사회-변화와 통제-. 21세기 북한. 서울 : 나남출판사
- 임영태 외(1999), 북한 50년사 1, 2. 서울 : 들녘
- 장필화(1996), 북한사회의 성별분업, 통일문제학술세미나 : 북한여성. 이화여자대
학교 한국여성연구소
- 조선일보(2001), “울트라 슈퍼우먼” 북한여성의 삶. NK 리포트, 조선일보
- _____(2001). “해외유학 5대 조건”, NK 리포트, 조선일보
- 조성기(1970), 북한의 사회교육제도의 변천 및 실제, 서울 : 국토통일원
- 조점환(1991), “북한의 학제와 교육내용”, 북한연구 제2권 제1호
- 조형(1992). “북한사회체제와 가부장제”, 통일문제학술세미나 : 북한여성. 이
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 차인순 · 김종미(1992), 북한여성해방의 현단계, 사회주의 여성해방의 현재와 미
래, 한국여성연구회 엮음, 서울 : 백두

- 최경구 외(1994), 북한의 주체이념과 사상교육, 북한사회론, 서울 : 나남출판사
- 최영선(1996), 북한여성엘리트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당·정·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일부(1998), 북한 어린이의 교육과 생활, 서울 : 통일부
- 통일부(1999), 2000 북한개요, 서울 : 통일부
- 한만길 외(1998), 북한교육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___ 외(1998),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대책 연구(Ⅱ),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여성연구회(1991), 한국여성현실의 이해 : 여성학강의, 서울 : 동녘
- 함인희(1996), "북한여성의 여성의식에 관한 연구-공사영역구분의 이분법을 넘어서-",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Ⅳ), 통일원
- 황무임(1997), 북한의 남녀평등에 관한 법제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황은주(1994), 북한성인여성의 정치사회화에 관한 연구-‘조선민주녀성동맹’과 『조선녀성』분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n Analysis of Women's Education Experience in the North Korea Education System

Jaehee Ahn* · Moosook Min**

This paper is to analyze gender equality represented by official education object of North Korea, then to discuss how women of North Korea accept it. For this study, we interviewed 23 North Korea women that have lived in South Korea since 1995. The results show that the women education of North Korea was constituted by the male-oriented social structure and consciousness. The major findings were discussed in three parts.

First, even though gender segregation didn't appear during the compulsory education period, the equality of education opportunity was not realized completely in the higher education and the social education stages. The higher education opportunity was divided partially by class, gender and region. Therefore, women who lived in rural and were a low social class had a difficulty in entering the university. Also, most of the women were hard to take the social education because of the male-oriented curriculum and time table. Second, gender stereotyped metaphor appeared in the curriculum, the textbook and the school activity. The official knowledge and the teachers strongly encouraged women to be the traditional female that devoted herself for her son and husband as well as the aggressive socialist fighter. Student activity was divided by sex too. For example, boy students acted in the important position in school life, on the other side, girl students did the subsidiary position. Third, we don't definitely state that the social labor participation of women results in gender equality as North Korea education asserts. Even if women got the same education process and college

* ph.D Lecturer, Sookmyung University

** Fellow, KWDI

diploma as men did, their ability was underestimated by the patriarchy and the contradictory femininity. So they were hard to get the upper and important social position. Namely, this sex roles division manifested in women education of North Korea affected strongly women's social position and role

The interesting point in this study is that this gender stereotyped ideology appeared as a deep care for women in the North Korea education. However, it is another gender discrimination to impose the gender stereotyped social role and consciousness to women irrespective of their will. So we need to inquire into the gender equality of North Korea education not only in the quantitative aspects but also in the qualitative aspects.